

GLOBAL DEFENSE NEWS

제1093호 2014.12.12.

■ 무기체계 소식

- 지휘통제·통신 독일군, 가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VBS3) 사용 협정 체결 2
- 감시정찰 벨라루스 육군, 방공부대용 신형 레이더 장치 배치 예정 3
- 방호·유도무기 러시아, 열차에 설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검토 중 4
- 기 동 노르웨이, 다목적장갑차 CV90 MultiC 인수 5
- 합 정 대만, 2024년까지 국산 잠수함 건조 계획 추진 6
- 항공 중 AVIC사, 미국의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 개발 자신 7
- 화 력 영 BMS사, 해상위협 대응용 비살상 레이저건 공개 8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정보센터는 전 세계 국방과학 기술정보와 방산시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방 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 국방과학기술정보(격월간), 주요국 국방·군사 동향 시리즈(연 3회), 세계 방산시장 연감 등의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방호·유도무기
기동
합정
항공
화력

주간 DTIMS 주요 기사

독일군, 가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VBS3) 사용 협정 체결

- 호주 BISim사와 독일 Eurosimtec사가 독일 시뮬레이션·시험국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독일군이 Virtual Battlespace 3(VBS3)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음.
 - VBS3는 군사훈련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서 병사들이 전술훈련, 임무예행 연습, 표준작전 절차 숙달 등을 지원하는 몰입형 가상 환경을 제공
 - 실제훈련을 위한 야전 투입전 사고, 의사결정, 통신개선 등을 위한 사후검토 도구 제공
 - VBS3 소프트웨어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술훈련 및 임무예행연습을 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분 과업 훈련장치 및 완전 임무 시뮬레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미 육군 및 해병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군 등 NATO 동맹국 군 30여 곳이 사용하고 있음.
- ※ 독일군은 공군 합동화력지원팀 절차훈련, 무인항공기 시뮬레이션, 포병훈련 외에 육군 전투모의센터에서 5년여 동안 분대 및 소대훈련을 위해 VBS 소프트웨어를 사용



▶ VBS3 이용한 전술훈련

[목차로 이동](#)

| 출처 | German Armed Forces sign agreement to use Virtual Battlespace 3 software, army-technology.com
2014. 12. 05.

벨라루스 육군, 방공부대용 신형 레이더 장치 배치 예정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방호·유도무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주간 DTIMS 주요 기사

- 벨라루스 육군 방공부대는 2015년 중 신형 레이더 장치 3~4대를 레이더 부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벨라루스 공군 및 방공사령관이 밝혔음.
 - 신형 레이더 장치는 저고도 Rosa 레이더 장치임.
 - 지상 3~4km 고도에 있는 표적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용자 없이 자동 모드로 작동
 - ※ 벨라루스 : 유럽동부 폴란드와 러시아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나라로서 예전에 백러시아로 불렸음.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 벨라루스 육군은 자국산 Vostok-D 레이더 장치를 계속 도입하면서, 방공부대에 대한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레이더 장비 현대화 중점은 1대의 신형 무기 구매 예산으로 구형 무기 5대를 구입하여 높은 품질로 수리하여 사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음.



▶ 벨라루스 Vostok-D/E 2D 감시 레이더

목차로 이동

출처 | Army of Belarus will be equipped with several new radar stations for air defense units, armyrecognition.com, 2014. 12. 07.

러시아, 열차에 설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검토 중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방호·유도무기
기동
합정
항공
화력

주간 DTIMS 주요 기사

- 러시아 전략로켓군은 미국의 전 세계 신속타격계획(Prompt Global Strike programme)에 대한 대응책으로 차세대 열차탑재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체계 추진 여부를 고려 중
 - 러시아 TASS 통신사는 본 사업이 추진될 확률이 아주 높으며, 2019년 초에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러시아는 1987년부터 총 36개 열차탑재 SS-24 Scalpel(RT-23UTTH Modlets) ICBM 체계를 운용한 바가 있음.
 - 1개의 체계는 디젤 기관차 2량, 미사일 탑재 발사용 열차 3량, 지휘소 열차 1량, 지원 장비 및 운용요원용 열차 최대 5량으로 구성
 - ※ SS-24 Scalpel체계는 START-II(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2007년 퇴역
- 새로운 열차탑재체계는 현 Yars ICBM 기반의 고체추진 다탄두형으로 예상
 - 신형 미사일은 길이 22.5m, 무게 47톤으로 무게가 구형 미사일의 절반이며, 발사용 열차 길이는 24m, 차축과 바퀴 수량은 표준형 냉장 화물열차와 동일



▶ SS-24 Scalpel 발사용 열차
(Saint Petersburg 철도 박물관)

목차로 이동

출처 | Russia ponders its railway-based ICBM Plans, janes.com, 2014. 12. 08.

노르웨이, 다목적장갑차 CV90 MultiC 인수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방호·유도무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주간 DTIMS 주요 기사

- 노르웨이는 CV90 장갑차의 3번째 버전인 다목적장갑차(Multicarrier)를 합의한 계약 일정에 맞게 2014년 11월 말에 인수함
 - BAE시스템 Hagglands사는 CV90 전투장갑차 144대를 성능개량 및 제작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계약 체결 후 2년 6개월 만에 5개 형상 중 현재 3개 형상을 납품
 - 2014년 초에 CV90 2번째 버전인 공병장갑차(STING)가 적기에 예산에 맞게 스웨덴 Ornskoldsvik 소재 BAE시스템사 Hagglands사 공장에서 납품
- BAE시스템 Hagglands사가 노르웨이와 체결한 계약에는 육군의 기존 CV9030 장갑차 103대에 대한 성능개량과 신형 41대 제작이 포함, 이를 통해 미래 전장 및 분쟁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방호력·생존성·상황인식·정보 및 상호운용성 등 능력을 강화한 다양한 형상의 첨단 CV90 144대를 육군에 제공함
 - 보병전투장갑차 74대, 정찰장갑차 21대, 지휘장갑차 15대, 공병장갑차 16대, 다목적장갑차 16대와 운전병훈련장갑차 2대 포함
 - 다목적장갑차는 박격포수송과 군수지원을 포함한 상이한 기능 수행 가능



▶ CV90 MultiC

목차로 이동

| 출처 | CV90 MultiC Delivered to Norway, armyrecognition.com, 2014. 12. 04.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방호·유도무기
기동
합정
항공
화력

주간 DTIMS 주요 기사

대만, 2024년까지 국산 잠수함 건조 계획 추진

- 대만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은 현재 국산 잠수함 건조 사업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24년에는 첫 번째 국산 잠수함 건조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카오 대만 국방부 차관은 대만의 국산 잠수함 건조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가오슝에 위치한 중국조선공사가 잠수함 건조의 주 계약업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첫 번째 잠수함의 건조가 2024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함.
- 대만 해군 관계자는 국산 잠수함 설계 완료 시기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함.
 - ※ 2001년 미국 부시정부는 대만에게 8척의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을 판매하는 안을 승인하였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실정임.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만의 Guppy급 잠수함

목차로 이동

| 출처 | Taiwan could complete first indigenous submarine in 2024, focustaiwan.tw
2014. 12. 10.

중 AVIC사, 미국의 F-35와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 개발 자신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방호·유도무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주간 DTIMS 주요 기사

- 중국 AVIC사의 Lin 의장은 국영방송인 CC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J-31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 AVIC :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 Lin은 중국의 개발 전투기 성능은 F-35의 전투성능을 능가할 것이며 초음속의 속도와 초지평선 탐지 능력은 유사한 수준이며 일부 성능은 미국의 전투기보다 오히려 우수할 것이라고 언급함.
- 전투기 기체는 cm^3 당 1.7~1.8g에 불과한 복합재료로 제작이 되어 cm^3 당 2.7~2.8g인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된 기존의 전투기보다 훨씬 가벼워 기동성과 작전범위가 대폭 향상된다고 설명함.
- 또한 스텔스 성능을 위하여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신소재도 병행 개발하고 있으며 전투기에 대구경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 탑재 가능성도 현재 검토 중임.
- 700~800명의 전투기 개발 전담팀이 구성되었으며 엔진 개발을 위해 프랑스 항공 및 Safran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이 전투기 개발 기술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함.



▶ 중국이 개발 중인 J-31 전투기

목차로 이동

출처 | AVIC wants to make fighter jet to compete with US F-35, wantchinatimes.com, 2014. 12. 11.

무기체계 소식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방호·유도무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주간 DTIMS 주요 기사

영 BMS사, 해상위협 대응용 비살상 레이저건 공개

- BMS(Britannia Maritime Security)사가 런던 운송·수송 안전기술 박람회(Transport Security Expo)에서 해상 운용을 위한 비살상 레이저건을 전시했으며, 이 SMU100 대즐(Dazzle)체계는 탄환 대신 레이저를 발사하여 1km 떨어진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
 - 해상에서 접근하는 위협에 대해 직접 살상 수단을 사용할 필요 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500m 거리에서 4m 높이의 광선 벽(wall of light)을 생성함으로써 일시적인 실명·방향상실·메스꺼움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BMS사에 따르면 본 체계의 레이저가 대상을 탐색하거나 단일 빔을 계속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장기간 지속되는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해적들의 함정 접근을 중지시킬 정도의 위력은 발휘한다고 함.
 - 해적들이 탑승한 소형 보트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면 800m 거리에서 보트 전체에 빛을 비출 수 있으며, 이는 마치 태양을 정면으로 보는 것과 같음.
 - ※ 본 장비는 군용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나, 대테러작전 등 비살상 작전에 적용 가능함.



목차로 이동

| 출처 | BMS displays nonlethal laser to repel maritime threats, shephardmedia.com, 2014. 12. 3.